배추 재배면적 줄어 가격 급등 조짐 정부 비축량 풀어 '김장대란' 막는다

전남 등 지난해보다 3.7% 줄어
가을무는 5918ha…15.0% 늘어
농식품부 김장재료 수급안정 대책

지난해 치솟았던 배추 가격이 올해 다시 떨어지면서 최대 주산지 전남을 포함한 전국 가을배추 재배 면적이 줄었다.

정부는 28일 김장철 5200t에 달하는 배추를 출하해 비용 부담을 줄이겠다는 '김장채소 수급안정 대책'을 발표했다.

이날 통계청의 '2021년 가을배추·무 재배면적 조사 결과'에 따르면 올해 가을배추 재배면적은 1만3345ha로, 지난해 1만3854ha보다 3.7%(-509ha) 감소했다.

전남 재배면적은 3349ha에서 3226ha로, 3.7%(-123ha) 줄었다. 해남 등이 가을배추 주산지인 전남 면적은 전국의 24.2%를 차지한다.

광주 역시 면적이 58ha에서 43ha로, 25.9%(-15ha) 감소했다.

충북(2304ha)과 인천(138ha), 대구, 울산, 대전, 세종, 서울, 제주 등 7개 시·도는 전년보다 재배면적이 늘었다.

지난해 '금(金)추'라 불릴 정도로 가을배추 가격은 뛰었지만 올해 가격이 다시 내리면서 재배면적이 전반적으로 줄었다.

정식기(7~9월) 배추 1kg 도매가격은 2019년 1033원에서 2020년 1910원으로 뛰었다가 올해 1040원으로 반락했다.

올해 가을무 재배면적은 5918ha로, 지난해 5147ha보다 15.0%(771ha) 증가했다.

전국 면적의 16.4%를 차지하는 전남은 838ha에서 970ha로, 15.8%(132ha)로 늘었다.

광주는 27ha에서 99ha로 266.7%(72ha)나 증가했다.

정식기 무 1kg 도매가격도 배추와 마찬가지로 2019년 530원에서 2020년 967원으로 올랐다가 올해 620원으로 내렸다. 하지만 가격 하락 폭이 상대적으로 적고 올해 초와 비교해서는 가격이 오르는 추세로 가을무는 가을배추와 달리 재배 면적이 늘었다는 게 통계청의 설명이다.

같은 날 농림축산식품부는 김장철을 앞두고 배추와 무, 고추 등 김장재료 공급을 늘리겠다는 '김장채소 수급안정 대책'을 발표했다.

배추는 김장 집중 시기인 11월 하순~12월 상순에 시장 출하량을 평시보다 1.37배 늘린다. 일평균 260t을 출하해 총 5200t을 공급할 계획이다.

수급이 불안정할 경우 정부 비축 물량 3000t, 출하조절시설 물량 3500t, 채소가격안정제 물량을 추가로 내놓을 계획이다.

무와 고추는 수급 불안 시 각각 1000t과 1.4t의 비축물량을 공급하며, 깐마늘은 비축물량 1000t을 우선 공급해 가격을 안정시킬 예정이다.

농업인의 날인 11월1일부터 12월8일까지는 대형마트와 전통시장에서 김장 채소류, 돼지고기를 20% 저렴하게 판매하며 비용 부담을 줄인다.

전국 농협 하나로마트에서는 배추, 무, 마늘 등 채소를 시가보다 최대 40% 할인 판매한다.

농식품부는 올해 가을배추는 생산량이 감소해 11~12월 도매가가 평년보다 소폭 오른 포기당 2300~2500원 수준일 것으로 내다봤다.

가을무는 11~12월 출하량이 증가해 가격이 평년보다 하락한 개당 900~1250원 수준일 것으로 예상했다.

같은 기간 마른 고추 도매가는 평년보다 5~6% 하락한 600g당 1만500원, 깐마늘은 21% 상승한 kg당 7800원 안팎일 것으로 예상했다.

/백희준 기자 bhj@kwangju.co.kr

광주신세계 오징어 게임 복장으로 '오징어 김밥' 판매

광주신세계에 입점한 광주 기반 김밥 전문점 '다르다 김밥'은 전 세계적으로 흥행몰이를 하고 있는 넷플릭스 시리즈 '오징어 게임'에 착안한 '오징어 김밥'을 선보이고 있다. 이 제품은 오는 31일까지 한정 판매한다. 〈광주신세계 제공〉

소상공인 손실보상 신청 이틀째
5만4000명 평균 350만원 수령

사상 처음으로 도입된 '소상공인 손실보상제' 신청 이틀째 5만4000여 명이 1919억원 가량 보상을 받았다.

중소벤처기업부는 28일 오후 4시 기준 소상공인 손실보상 지급실적은 5만4566건, 1919억원이라고 이날 밝혔다.

1건당 지급액은 351만6800원 가량이다.

온라인 손실보상 신청(소상공인손실보상.kr)은 지난 27일 오전 8시부터 시작됐다.

현재까지 18만4281건 보상 조회가 이뤄졌으며, 신속보상 금액을 확인한 뒤 지급신청은 10만677건이 진행됐다.

신속보상 금액을 확인한 뒤 지급신청을 대기하고 있는 건수는 8만2217건으로 집계됐다.

별도 서류 제출이 없는 신속보상 금액에 동의하지 않고 다시 금액을 산정하는 '확인보상'은 1387건 추진됐다.

중기부는 오는 30일까지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를 기준으로 해당되는 날에 신청하는 '홀짝제'를 시행한다.

29일은 사업자번호 끝자리가 홀수면 신청할 수 있다. 31일부터는 번호 구분없이 온라인 신청할 수 있으며, 11월3일부터는 광주 5개 구와 전남 22개 시·군이 지정하는 장소에서 창구 신청할 수 있다.

한편 신청 첫날인 27일에는 3만6000여명에게 1200억원 이상이 지급됐다.

/백희준 기자 bhj@kwangju.co.kr

수자원공사 수자원시설 안전관리 워크숍

영·섬유역본부 직원들 대상

한국수자원공사가 28일 영산강과 섬진강 유역의 댐, 보 등 수자원 시설물 안전관리를 위한 직원 대상 워크숍을 열었다. 〈사진〉

수자원공사 영·섬유역본부는 이날 광주시 서구 치평동 영·섬본부에서 '영·섬유역본부 수자원시설 안전관리 워크숍'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행사는 기후변화에 대응한 대국민 물안전 확보와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마련됐다. 영·섬유역 댐, 보 및 홍수조절지를 관리하는 모든 부서가 참여했다.

수자원 시설 안전관리 뿐만 아니라 정부 공공기관 안전강화 대책(2019년)에 따른 공공기관의 산업재해 저감과 안전기술 확보에 대한 논의도 이뤄졌다.

이날 정상만 한국재난안전기술원 원장과 김용현 국토안전관리원 부장 등이 강단에 올라 재난안전 정책을 제시했다.

정용배 영·섬유역관리처장은 "지속적 교육과 안전기술 개발을 통해 유역 내 물안전을 확보하고 지역민들과 상생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백희준 기자 bhj@kwangju.co.kr

에너지 신기술 한 자리서 만난다

광주서 '한전 빅스포 2021'
11월10~12일 김대중컨벤션센터
국내외 248개사…온라인 병행

에너지 신기술을 만날 수 있는 국제 행사 '빛가람 국제전력기술 엑스포 2021'(빅스포 2021)이 11월10일부터 12일까지 사흘 동안 광주에서 열린다.

단계적 일상 회복(위드 코로나)을 맞아 빅스포는 광주시 서구 치평동 김대중컨벤션센터과 한국전력 나주 본사, 국립아시아문화전당 등에서 열리며 온라인 행사도 병행한다.

한국전력은 올해로 7회째를 맞는 빅스포는 '탄소중립'을 주제로 신재생, 효율 등 에너지 분야의 미래 신기술과 산업 방향을 제시하는 국제 종합에너지 박람회로 기획됐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행사에는 노키아, 델, 제네럴 일렉트릭(GE), 효성중공업, 현대일렉트릭, KT, SKT 등 국내외 248개 기업이 참여한다.

온라인 상으로만 열린 지난해 행사에는 36개국 228개사가 참여한 가운데 4만8013명이 참관했다.

개막 행사에서는 반기문 전 유엔(UN) 사무총장과 안젤라 윌킨슨 세계에너지협의회(WEC) 사무총장이 탄소중립을 주제로 기조 강연을 한다.

이어 정승일 한전 사장이 한전의 2050 탄소중립 비전을 처음으로 발표하고 그 의미를 직접 설명할 예정이다.

다음 날에는 국내외 에너지분야 기관장 등 100명이 참여하는 '에너지리더스서밋'(ELS)이 열려 2050 탄소중립 사회 실현을 위한 대응전략을 논의한다.

신기술 전시회에서는 HVDC(초고압직류) 송전기술, 전기차 충전 신기술 플랫폼, 지능형 전력 엔지니어링 솔루션, 전력설비 원격제어 등 신기술을 체험형 콘텐츠를 활용해 선보인다.

국제콘퍼런스에서는 WEC, 국제재생에너지기구(IRENA), 국제에너지기구(IEA) 등 에너지 분야 국제기구의 전문가들이 탄소중립 글로벌 동향을 전하고 글로벌 기업의 대표들이 각사의 탄소중립 실천 방안 등을 소개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유리창호형 BIPV(건물 일체형 태양광발전 시스템), 폐선박활용 발전설비 등 탄소중립 아이디어를 실현한 발명품 100여점을 전시하는 국제발명특허대전도 열린다.

에너지밸리 일자리 박람회, 미래 에너지 어린이 그림대회, 인공지능 로봇개 스팟(SPOT) 퍼레이드 등 다양한 부대행사도 마련된다.

전시회 직접 참가가 어려운 경우에는 온라인 플랫폼에 구축된 메타버스 가상 공간에 입장해 전시 부스를 둘러보고 참가사와 소통할 수 있다. 온라인 부스 내에서 비즈니스 미팅과 수출 계약도 가능하다.

/백희준 기자 bhj@kwangju.co.kr

한 눈에 보는 경제지표

↓ 코스피	3009.55 (-15.94)
↓ 코스닥	1000.13 (-8.82)
↓ 금리(국고채 3년)	2.017 (-0.027)
↓ 환율(USD)	1169.70 (-0.30)

모던 슬라브옥상 칼라강판 지붕공사 및 스틸방수
아파트, 빌라, 원룸, 주택, 상가건물, 대형빌딩 등(슬라브 옥상) 시공
옥상지붕공사
슬라브 주택, 데스리 및 한옥 등은 칼라강판 지붕공사
옥상 스틸방수
갈라지고 물이 새는 옥상바닥
겨울의 차가운 냉기! 여름의 뜨거운 열기! 방수와 단열 한번에 해결!

옥상지붕공사 및 스틸방수 무료견적
디자인 등록 제30-0934833호 제30-0949873호 특허청
광주·전남 같이 하실 분 모십니다.
MODERN 모던건설 (트윈스틸)
시공문의 062)531-3530, H. 010-9229-3530

소상공인 공동브랜드 k.tag 전국100개 인증업체선정
大山 프리모 남녀 가발
광주전남 기능장 1호
국무총리상 표창 보건복지부 장관상 표창
광주광역시 시장상 표창 광주남구 청장상표창

특수가발 별매 (원터치) 테잎 x 핀 x
기능장이 직접 37년 시술. 1만명 이상 내공
매주화요일 휴무 (일요일 정상 영업)
H.M사 동급제품 130만원
59만원~
광주 남구 주월동 1199-12 라인가든아파트 상가 2층(대광여고 옆)
062.673.5858 (모발모발)